

솔로몬 소식 13-3호 (통권26호)

IDI Solomon Islands
2013. 6. 11



카우타베 학생들과 함께

내부 모습



외부모습



투루라나 성전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7일 카우타베 직업학교의 2명의 교사와 15명의 열정적인 헌신으로 성전 건축이 완료 되었습니다. 지난주 학기가 종료되었음에도 학교일정을 연기 하면서 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끝까지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정글지역 대부분 낙옆으로 지어진 마을 한가운데 밝은 색의 페인트와 유리로 된 창문까지 설치된 교회 건물이 빛이나는것 같습니다! 금주 주말(15,16일) 1박2일로 오픈식 행사를 하는데 이를 위해 교회 간판과 발전기, 전구셋트, 악기, 성경과 찬송등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고 수타 교구에서는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주변에 모여들어 신기한듯 바라보고, 청년들은 자갈을 강에서 주어와 교회 계단 아래에 깔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공사를 마무리 하고 밤 8경 마을에서 나와 수투교구의 교회 앞에 모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누군가 '승리'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영에 사로잡혀있는 투루라나의 수많은 영혼들을위한 소중한 승리입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오픈식 내용은 다음주 특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청년들이 자갈을 나르는 모습



교회 주변에 모여든 마을 주민들



공사를 마치고 떠나는 카우타베 학생들을 배웅 나온 마을 주민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7월 부터 안식년을 시작으로 미국 동부에 있는 리버티 신학대학원(Liber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6월 4일 미국에 있는 리버티 신학 대학원(Liber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석사(M-div)과정, 2013년 가을학기 입학 을 위한 미국 학생 비자를 받았습니다.

학교 입학 승인을 받고 1주일 뒤 갑자기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군도에는 미국 대사관이 없어 분기에 한번 영사 한 명이 이곳을 방문을 하여 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이 일정이 갑자기 잡힌 관계로 미국 대학에서 입학 승인서도 원본을 받지 못한채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던 건 2009년부터 였습니다. 선교사로 살아오면서도 신학공부에 대한 마음은 사실 없었습니다. 오히려 컴퓨터와 미디어등 다른 전문 분야에 더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에서 2년 사역후 한국에 들어갔을때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교회의 몇 분의 장로님과 집사님들도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사역을 해나가면서 현지 교단과 교회 리더들, 그리고 현지인 형제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제가 깊어질수록 제 안에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서 신학공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 비자를 받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비자 신청 자체가 까다롭고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학생 비자신청의 가장 중요한 서류인 입학 승인서류(I-20)가 인터뷰 날까지 도착 되지 않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터뷰 1주일 전에 발송을 하였지만 솔로몬 군도

IDI Solomon Islands 는 이렇게 운영될것입니다.

그동안 교재해오던 현지인 형제 2명을 NGO 직원으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여 저희가 비어있는 기간에도 IDI Solomon Islands의 사역이 이어질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정기적인 재정을 지원하여 우편함을 유지하고, 직원으로 동역하는 형제들에게 투루라나 지역교회의 정기적 방문과 그동안 양육해온 존형제의 관리와 학비지원, 그리고 기아대책 기구로 부터 새로이 들어올수 있는 선교사를 위한 비자 업무등, 솔로몬 군도의 장기적인 사역을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감당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장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투투라나로 가는길 잠시 비가 내린뒤 무지개가 멎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무지개의 끝을 보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새로운 약속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기 도 제 목

1. 매일 매일의 삶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할수 있도록.
2.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거할수 있도록.
3. 투투라나 성전건축 오픈식을위해
 -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되도록
 -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 드러지는 예배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마을 주민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4. 수타교구에서 지속적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투투라나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5. IDI Solomon Islands 현지직원에 대한 행정정리 및 지속적인 연계가 될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 지도록.
6.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항공비와 학교 수업료, 그리고 새로운 곳에 정착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7. 바쁜 일정가운데 아이들이 안정감을 잃지 않도록.
8. 가족의 건강을 위해.

에 들어오는 비행기도 적고 일의 처리속도가 느려 서류도착이 안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재정 증명 관련해서도 원래 교육기간 4년의 전체에 대해 필요한 1억이 넘는 재정에 대한 은행 잔고 증명이나 보증인의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것이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2가지 상황을 보면 저희가 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몇 일전 가정예배 가운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36) 말씀으로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가운데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고, 재정상태를 증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된 서류 대신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는다” 라는 말로 대신 하였습니다. 결과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기아 대책 기구에서는 2팀(6년)을 마친 선교사에게 장기사역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 7월부터 저희 안식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시작으로 약 3년6개월의 기간 동안 신학대학원 공부를 마친 뒤 다시 솔로몬 군도로 돌아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어있는 이 기간 솔로몬군도에 그동안 교제 해온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 소정의 정기적인 후원금을 보내 저희가 없는 기간에도 이곳에 설립한 NGO, IDI Solomon Islands를 통한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장치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아대책 기구와 협조중에 있습니다.

솔로몬에서 살아오면서 낯설고, 고단하게 여겨지던 일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생활의 패턴이 안정 되어져 가는 시점에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자 결정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니 20KG를 보내는데 50만원 정도 하더군요...아마도 솔로몬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다시 여행가방 4개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곳에 있던 미국에 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배우며 하루하루 주님의 비전 삼아 살아 가야한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아울러 동역자의 지속적인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와 필요들이 많아 어떡해 준비해야하나 싶지만 비자도 기적적으로 주셨으니 한걸음 한걸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소식을 전합니다.



연락처

주 소
P.O Box 86 Honiara
Solomon Island

이메일
cjh5690@naver.com
cjh5690@gmail.com

전 화
+677-7456108/7558001